

WWW.GONGJU.GO.KR

# 홍미진진 공주

2026년 1월호



눈 내리는 불장골저수지의 풍경

## 신년사

###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주시의회 의장 임달희입니다.

희망의 기운이 가득한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말은 힘과 도약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힘차게 달리는 말처럼 시민 여러분의 삶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공주시의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곁에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또한 시민의 삶을 살피고 지역 곳곳을 누비며 의정활동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6년은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의회의 본분을 잊지 않고  
시민의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병오년 새해에도 공주시의회는 변화와 도약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단단한 걸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애정 어린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의 첫걸음이 따뜻한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며,  
올 한해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새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 아침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장 드림

# 의회 소식

## 시민예술공간 전시 신청 안내



공주시의회 시민예술공간은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에 방문한 시민에게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 신청대상 : 관내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 예술가
- ❖ 전시기간 :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 신청방법 : 의회사무국 의정팀 방문 신청
  - 전시예정일 2주 전까지 신청 접수
  - 자세한 전시 일정은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 신청제한
  -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특정 단체, 종교에 대한 광고, 선·포교를 목적으로 사용하려 하는 경우
  - 공익 실현에 부합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 ❖ 문 의 의회사무국 ☎ 041-840-8043

# 의회 소식

## 공주만의 가치가 살아있는 관광정책을 펴자



공주시의회 의원  
김관한

많은 분들이 “고마열차가 시내로 오면 좋겠다”고 말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어렵다고 한다. 이유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고마열차 때문에 차가 막힌다, 또 하나는 차 때문에 고마열차가 늦어진다는 것이다.

둘 다 동시에 맞을 수는 없다. 경찰에 물어봤다. 교통정체와 보행자 사고 위험이 있어서 곤란하다고 한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고마열차 최고 속도가 시속 20km이다. 공산성에서 시청까지는 2km인데, 단순 계산하면 6분 걸린다. 중간에 한두번 서도 10분 정도면 충분하다. 여행 오신 분들이 이 10분을 기다리지 못할까? 오히려 “천천히 보니까 더 좋다”고 하지 않을까.

공주 도심은 정말 특별하다. 오래된 성당, 옛 극장 두 곳, 감영터, 하숙마을, 제민천, 책공방, 나태주 문학관, 유관순 공원, 목관아터, 당간지주, 기독교박물관 등이 있는 곳이다. 어디가도 이만한 거 한두개는 다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많은 볼거리가 도보 30분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곳은 전국에 공주밖에 없다. 여기 다녀가신 분들 지금껏 실망하신 분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공산성 오시는 분, 3분의 1만 호서극장 앞까지 오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산성시장이 살아나고, 작은 사거리 주변 상가도 활기를 되찾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던 원도심 활성화가 해결되는 것이다.

고마열차 출발지를 시청으로 바꾸면 공산성 앞 상인분들 걱정도 사라진다. 시청에는 넓은 주차장이 있다. 주말에 여유가 굉장히 많다. 관광객들이 거기에 차를 대고, 10분이면 공산성까지 갈 수 있다. 관광객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난다. 공산성 앞에 수백억 들여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 고마열차 한대만 더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하면 공산성도 살고, 시내 상권도 살고, 관광객도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더 오랜 시간 공주에 머물게 된다. 이 많은 변화가 고마열차 한대로 된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어서 으뜸 맛집 이야기도 해보자. 지금 우리 시에서 정하는 맛집은 맛 50%에 나머지는 위생과 친절 점수로 평가한다. 그러다 보니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식당들이 맛집으로 선정된다. 올해 70곳 선정했는데, 그중에서 15곳이 5년이 안 된 식당이다.

서울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새로 생긴 마카롱집을 추천하는 것이 맞을까? 이미 포털사이트에 정보가 넘쳐난다. 굳이 시 예산을 들여 똑같은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시에서 하는 거라면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개업한 지 오래된 식당에 높은 점수를 줘야 한다. 시장 한구석에서 30년 넘게 보리밥만 팔아온 집, 그런 곳이 진짜 맛집이 아닐까? 둘째, 읍면마다 관광지는 제외하고 가장 오래된 식당 한두곳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그게 바로 공주만의 맛이고, 공주만의 역사이다.

오래된 식당, 주방이나 화장실이 새로 생긴 식당만큼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오래된 집들이 다 그렇지 않은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공주의 매력이다.

여행 다니는 분들은 때로는 조금 불편해도 그 지역의 오래된 맛과 분위기를 더 좋아한다. 우리 스스로 “공주는 오래된 도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맛집도, 관광도, 도시의 색깔에 맞게 가야 하지 않을까?

공주만의 가치가 살아나는 정책을 만드는 것, 위 두가지 방안을 포함해 함께 고민해 보자.

## 쉬어도 괜찮다, 다시 나아가면 되지



공주시의회 의원  
임규연

한해를 떠나보낼 때마다 마음은 늘 한발 늦게 따라오는 것 같다. 달력은 이미 마지막장을 넘겼는데, 머릿속에는 아직도 몇달 전 장면들이 선명하다. 뜻한 대로 흘러가 안도했던 순간도 있었고, 다시 떠올리면 아쉬움이 먼저 떠오르는 장면들도 있었다. 그래서 한해를 정리하는 마음에는 늘 여러 감정이 겹쳐 머물곤 한다.

저는 그럴 때면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짧은 위로의 말을 건네곤 한다. 크게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분명 의미 있었던 작은 성취들, 애써 준비하고도 끝내 접어둔 일들까지 함께 떠올려 본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되짚다 보면, 그 모든날을 지나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문득 경이롭게 느껴진다.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라고 마음속으로 한번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묵직했던 한해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하다. 아마 많은분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신을 다독여 왔으리라 생각한다.

작년 한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랫동안 누군가의 기대를 맞추고 맡은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왔다. 그 사이 정작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은 늘 나중에 미뤄지곤 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도 결국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때때로 잊고 지낸다. 그렇기에 새해에는 여러분이 “나는 지금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더 자주 건네보길 바란다.

몸이 보내온 신호를 애써 모른 척한 날은 없었는지, 마음이 지쳤다는 말을 농담처럼 흘려보낸 순간은 없었는지, 자신을 한 번씩 살펴보는 일을 잊지 않으셨으면 한다. ‘나’를 알아가며 감내하는 해가 아니라, ‘나’를

지켜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물론 모든 계획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의욕만큼 속도가 나지 않을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이유로 잠시 멈춰 서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순간들이 곧바로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일도 결국 다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이 아니라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는 일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한다.

삶이 늘 특별할 필요는 없다. 하루가 너무 버겁지 않게, 마음이 자주 지치지 않게 흘러가면 충분하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키고 싶은 가치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그리고 필요할 때 잠시 멈춰 방향을 점검하는 여유가 함께하기를 바란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 나은 내일로 이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여는 지금, 여러분의 하루에 기쁨과 안녕이 더 오래 머물길 바라며 한해의 끝에서, 그렇게 쌓인 시간들이 여러분께 따뜻한 기억을 선물 하길 기원한다.

